

#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

Familism, filial piety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부교수 최 정 혜

Departmen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 Jeong-hye Choi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uch traditional family ethics exist in modern society. For this goal, I have analyzed norm consciousness of the family among adolescent, middle and old generation. In this research, three kinds of questionnaire were used and the data were obtained from 1,661 samples of three generation groups living in Gyeongnam area.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lial piety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were not changed at all in traditional family ethics. The filial piety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are the most important family concepts without showing any difference in generation-gap in modern society.

Second, the decreasing traditional norm consciousness of family was familism value. Specially the familism value becomes weaker from old to younger generation.

Third, the filial piety and familism value were shown to be the important factors to support their parents. These concepts showed same trends without showing generation-gap.

\* 이 논문은 대한가정학회 제 52차 춘계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임.

##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적인 면은 놀라운 성장을 가져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으나, 문화적인 면 특히 가치와 관련된 면에서는 역사의 단절을 심화시켜왔다. 즉 전통문화가 부정되어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문화는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며 우리자신의 정체성과 가장 밀착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정혜, 1997). 특히 오늘의 한국가족은 형태 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의 면에 있어서도 신구 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김경신, 1998). 외형적인 가족구조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노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 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내면적인 가족의 변화 역시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던 집합주의적 가치관은 쇠퇴하고 개인을 위한 가족이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부모들은 전통적 생활양식인 집합주의적 가족주의에 익숙한 반면 자녀들은 개인 중심주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 세대간에 가족주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노후 부양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김송애외, 1991).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더불어 변화하고 있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인 전통 규범으로서 강하게 지속되는 부분도 있다(홍상욱, 1990). 즉 우리의 전통적 가족문화를 지배하는 윤리 중의 하나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분적으로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치결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가치 아래 삶을 형성해 가고 있어 부분적인 변화는 있겠으나 계속해서 주요 규범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있어 가족주의 가치관의 규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또한 가족문화는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심은 가족을 이루는 핵심으로서의 부모-자녀관계를 들 수 있고 이 관계는 우리의 전통적 '효' 사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무조건 전통을 배제하고 서구적인 것을 뒤쫓던 결과, 효에 대한 가치관도 혼란에 빠졌으며 그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노부모 부양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효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혼돈으로 노부모 부양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부모와 자녀 모두 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김송애·조병은, 1991; 성미애·옥선화, 1997; 송현애·이정덕, 1995; 이신숙·서병숙, 1993; 이희자의, 1996; 조경자의, 1996; 최정혜, 1994). 그 동안 노부모부양은 전통사회에서 관습적이고 규범적 가치였던 '효'에 바탕을 둔 가족부양체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으나,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심각한 노부모 부양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성규탁, 1991, 1995; 이은경, 1999; 최정혜, 1994). 이에 최근 현대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덕목으로서,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효'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성규탁, 1995; 정옥분의, 1996; 성미애·옥선화, 1997; 최정혜, 1998). 이러한 효 의식은 노부모부양과 관련된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기본 이념이 되므로 오늘날 세대간의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족문화의 현주소뿐만 아니라 노부모 부양정책의 방안 모색에도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가족문화에 대한 가치변화나 의식의 흐름은 여러 세대 집단을 동시에 분석해 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데,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에 있어 3세대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김경신, 1998).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우리 가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노년, 중년, 청년층별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가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에 기초한

정부의 바람직한 노인부양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노년, 중년, 청년층 별로 가족주의 가치관,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또한 세대별로는 어떠한가?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은 어떠하며, 또한 세대별로는 어떠한가?
- 3) 노년, 중년, 청년층별로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어떠하며, 또한 세대별로는 어떠한가?
- 4) 노년, 중년, 청년층별로 가족주의 가치관, 효 및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하며, 또한 세대별로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sup>1)</sup>

### 1.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간관계의 규범으로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고 이 집단의 이익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가치 지향이다. 가족주의는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집합주의의 기준으로 정의되며(Heller, 197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과 가족을 중심으로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 접근되어 왔다(김태길, 1982; 이효재, 1985; 최재석, 196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 접근하고자 하며, 다른 연구들(김송애·조병은, 1991; 옥선화, 1989; 한은주·김태현, 1994)에서 성격이 규명된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우대의식 등의 총체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다룬 실증적 연구들을 보면 가족주의 가치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

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김송애·조병은, 1991), 경제적 상태, 연령, 성, 교육수준, 직업, 자녀수, 결혼년수, 종교, 동거형태, 출신지역 등의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송애·조병은, 1991; 최정혜, 1997; 한은주·김태현, 1994; 한은주·최배영, 1997). 한편 농촌가족을 중심으로 본 옥선화의 연구(1990)에서는 성별로는 차이가 없고 연령과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에서는(이은경, 1999; 최정혜, 1997) 연령과 성별에서 차이가 나타나 연구대상에 따른 영향 변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근대화 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에서 근대적으로 즉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에서 개인 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해 감을 말해주나 노년, 중년, 청년 세대별로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부양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2. 효 의식

효(孝) 사상은 유교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백행지본(百行之本)으로 존중해 왔으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총괄적인 윤리체계를 한마디로 표명한 것이 '효'이다. 이러한 효는 지난 수세기 동안 부모-자녀관계와 부모부양 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치로서, 우리의 의식과 예의 범절에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성규탁, 1994). 이처럼 부모 봉양에 대한 윤리적인 효는 개인적 이득을 초월한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부모를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남을 수 있지만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그 실현 방법은 달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박재간, 1989).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효 이념을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 부양 의식에 관한 더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6호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을 참조하기 바람.

성인자녀의 효 의식과 관련된 일부 연구를 보면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강한 효 의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병숙, 1989; 옥선화, 1989; 옥선화외, 1994). 성인자녀의 효 의식과 관련된 변수 연구로는 성규탁의 연구에서(1995) 연령이 낮은 소년층이나 청년층보다 연령이 높은 장년층의 효행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옥분 등(1996)은 세대 및 성별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중년세대의 효 인식이 성인초기나 중고생, 아동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김명자 등(1996)도 중년기 남편과 부인의 효도관이 신세대 남편과 부인보다 높다고 보고하여 세대 및 성별 차이를 밝혔다. 이상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 등은 성인자녀의 효 의식에 관련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효 의식은 부모부양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또한 부모부양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효 의식 척도를 따로 구성하였다.

### 3. 부모부양 의식

부양 의식이란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부양 의식의 변화는 세대간의 부양에 대한 기대 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예측하게 하므로 의식 및 태도의 변화가 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이가옥외, 1990). 특히 노부모 부양이 주로 성인자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자녀의 부양 의식이 노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부양 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노인부양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장남이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김태현, 1994), 전반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기혼자녀의 부양 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송애외, 1991; 서병숙, 1988; 서병숙·이신숙, 1991; 우미경, 1988; 이가옥외, 1990; 최정혜, 1998; 한은주외, 1997; Les Whitbeck et al., 1994). 따

라서 세대별 비교를 통해 현대사회 속의 부모부양 의식이 어떠한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성인자녀의 부모부양 의식 관련 변수는 교육 수준, 연령, 경제적 상태, 형제수, 동거기간 등으로 보고되었다(우미경, 1988; 서병숙·이신숙, 1991; 한은주·최배영, 1997).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많은 기혼자녀일수록, 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형제수가 4-5명인 집단이, 부모와의 동거기간이 많을수록 부양 의식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 4. 세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연령변화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역동적인 관계이며, 각 세대가 다르게 경험하는 사회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사회에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관계 중에서 특히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는 효의 윤리를 가족관계의 핵심으로 부각시켜온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세대관계에 있어 가치, 태도,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세대차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며(Bengtson, 1975, 1989; Brackbill & Kitch, 1991) 노부모와 그 자녀들이 비록 서로에 관해서 알고 있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염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공감하기는 어렵다(Braungart & Braungart, 1986; 김태현, 1994). 또한 성인자녀들은 부모보다는 배우자나 자식들과 더 밀접함을 느끼고 있어 이러한 세대차이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가치체계는 전통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전통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으므로 급변하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 속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고 현대적 가치관을 체득해 온 젊은 세대와는 가치관이나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대와 전통을 고수하려는 구세대간에는 견해 차이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교환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유전학적 유사성이 있어 생리적으로

로 비슷한 점이 있으므로 구세대와 신세대간에는 사회적 및 생리적 유사성이 지속된다(Glass et al, 1986; Elder, 1984).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고 사회환경이 변하지만 구세대의 전통은 지속되며(Campbell, 1969), 가족은 이러한 사회적 이념과 가치를 영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hodorow, 1978; 성규탁, 1995).

부모자녀의 세대간 관계는 혈연에 근거한 관계로서 어느 한편의 사망 없이는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운명적이며 강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 두 관계는 상호의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때로는 공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관계의 균형을 가져오는 어떤 규범적인 압력이 존재한다고 한다(성미애·옥선화, 1997). 이 규범적인 압력이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윤리, 즉 가족주의가치관, 효 의식, 부모부양의식 등의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볼 때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적 원리로서, 또한 효 의식은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기본가치로서 우리 삶에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이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중첩되는 영역도 있겠으나 이러한 가치 이념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지속성과 유사성을 가지면서 우리 가족 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는지? 노년, 중년, 청년층의 세대간 비교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가족주의가치관, 효 의식, 부모부양의식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별 문항 수와 신뢰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는 옥선화(1989)와 한은주, 김태현(1994)의 척도를 이용하여 가족우선성, 부계

<표 1> 각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계수

척도의 종류	문항수	Cronbach's $\alpha$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가족주의가치관 척도	16 문항	.87	.83	.79
효 의식 척도	5 문항	.84	.81	.74
부모부양의식 척도	12 문항	.85	.88	.85

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에 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효 의식 척도는 성규탁(1994)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5개 항목을 선택하여 부모에 대한 애정, 보답, 존경, 책임감, 희생 등에 대하여 그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효 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부모부양의식 척도는 김명자·안선영(1996)과 최정혜(1994)의 척도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신체적 부양 등에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대상은 경상남도(8개시와 16개 군)에 거주하는 청년층인 남녀 대학생 675명, 중년층인 기혼 남녀 393명, 노년층인 만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593명으로 총 1,661명이다.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예비조사 후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C, G, 대학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997년 1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 후, 본 조사는 1997. 2. 24-3. 25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중년층의 경우 1997년 5월에 C시와 M군의 기혼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는 1997. 6. 16-7. 1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노년층은 1997년 12월에 C시와 M군의 남녀 노인 60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는 1998. 1. 5-2. 28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대상자 표집은 지역의 안배를 위해 유의 표집을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청년층은 직접 응답을 받았으며, 중년층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서 응답을 받았고, 노년층은 본 연구자에게 훈련을 받은 대학 2, 3학년 조사자 20명이 직접 노인에게 면접조사를 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청년층의 경우 800부를 배부하여 685부를 회수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675부(84.4%)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중년층의 경우 5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460부중에서 393부(71.5%)를, 노년층의 경우는 7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620부중에서 539부(77.0%)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Multiple Range Test, 중다회귀분석 등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으며, 연령은 노년층의 경우 60-65세가 가장 많고 중년층은 30대가 청년층은 22세가 가장 많다. 가족형태는 노년층의 경우 장남 부부와 함께 사는 경우와 노부부만 단독으로 사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높고, 중년, 청년층은 핵가족이 대부분이다. 출생순위는 노년, 중년층은 둘째 이상이 가장 많고 청년층은 첫째가 가장 많다. 자녀수는 노년층의 경우 3-4명이 가장 많고 중년층은 2명이 가장 많으며 청년층은 형제수가 4명 이상이 가장 많다. 청년층에서 형제수가 4명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지역이 지방으로서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종교는 노년, 중년층은 불교가 가장 많고 청년층은 종교가 없는 집단이 가장 많았다. 배우자 유무는 노년층에서 '없다'가 '있다'보다 1.5배정도 더 높게 나타나 노년기의 혼자됨의 정도를 추측케 한다. 한편 중년층에서

는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비율이 부모생존의 비율과 같이 나타나 노년기의 배우자 없음의 문제를 시사해준다. 가정의 경제력은 모두 보통이다 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교육정도는 노년층은 국졸이, 중년층은 고졸이 가장 높았다. 건강상태는 노년층에서 가끔 아프다가 가장 높으며 중년층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노년층의 생활비 원조자는 아들·딸 모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원조가 '없다'는 비율이 전체의 1/5(22.8%) 정도로 나타나 노년기 생활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 IV. 결과 및 논의

### 1. 노년, 중년, 청년층의 가족주의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정도에 대한 전 반적 경향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년층(M=3.53)이 가장 높고, 중년층(M=3.12), 청년층(M=2.65) 순으로 나타나 세대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선행연구(김경신, 1998: 노년 3.91, 중년 3.47, 청소년 3.02; 한은주·김태현, 1994: 시부모 3.36, 며느리 2.91)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세대별 차이의 경향성은 일치하였다.

하위영역 별로 보면 전체와 같은 경향이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 의식'으로 노년, 중년, 청년층 모두 타 영역보다 높게 나타나 오늘날 가족주의 가치관 영역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노년층(M=3.74)이 중년(M=3.39), 청년층(M=3.13)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효 의식은 청년층이(M=4.44) 중년층(M=4.2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개인주의적 사회풍토의 영향으로 효 의식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청년층의 효 의식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은 계속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노년층(593)	중년층(393)	청년층(675)
		N(%)	N(%)	N(%)
성별	남	249(42.0)	139(35.4)	229(44.3)
	여	344(58.0)	254(64.6)	376(55.7)
연령: 노년/중년/청년층	60-65세 /30대 /20세 이하	263(44.4)	212(54.0)	27( 4.0)
	66-70세 /40대 /21세	146(24.6)	160(40.7)	139(20.6)
	71-75세 /50대 /22세	120(20.2)	21( 5.3)	326(48.3)
	76세이상/ / 23세 이상	64(10.8)		183(27.1)
가족형태: 노년/중년·청년층	장남부부와 /확대가족	185(31.1)	95(24.2)	134(19.9)
	장남외 아들부부와 /핵가족	48( 8.1)	298(75.8)	541(80.1)
	딸 부부와	10( 1.7)		
	미혼자녀와	73(12.3)		
	노부부만 혼자	183(30.9) 94(15.9)		
출생순위	첫째	186(31.4)	112(28.5)	242(35.9)
	둘째이상	407(68.6)	214(54.5)	204(30.2)
	막내		67(17.0)	229(33.9)
자녀수: 노년/중년·청년층 (청년층: 형제수)	1-2명 /1명 이하	89(15.0)	20( 5.1)	110(16.3)
	3-4명 /2명	273(46.0)	238(60.6)	179(26.5)
	5명 이상 /3명 /4명 이상	231(39.0)	106(27.0)	171(25.3)
			29( 7.4)	215(31.9)
종교: 노년·중년/청년층	없 다 /없다	158(26.6)	108(27.5)	382(56.6)
	기독교 /있다	66(11.1)	77(19.6)	293(43.4)
	불 교	369(62.3)	208(52.9)	
배우자 유무 노년/중년층 (부모님 생존상태)	있 다 /두분 생존	235(39.6)	181(46.1)	
	없 다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358(60.4)	22( 5.6)	
			190(48.3)	
가정의 경제력	어 렵 다 /78(13.1)	57(14.5)		
	보통이다 /479(80.8)	324(82.4)		
	넉넉하다 /36( 6.1)	12( 3.1)		
교육정도 : 노년/중년층	무학 /국졸 이하	147(24.8)	37( 9.4)	
	국졸(서당) /중졸	274(46.2)	90(22.9)	
	중졸이상 /고졸 /대졸 이상	172(29.0)	191(48.6)	
			75(19.1)	
건강상태: 노년/중년층 (부모의 건강상태)	자주아프다 /135(22.8)	59(15.0)		
	가끔아프다 /294(49.6)	205(52.2)		
	건강하다 /164(27.6)	129(32.8)		
직업 유무	있 다 /282(47.6)			
	없 다 /311(52.4)			
생활비 원조자	장남 내외 /95(16.0)			
	아들들 /97(16.4)			
	아들·딸 모두 /224(37.8)			
	딸 /17( 2.8)			
	국 가 /25( 4.2)			
없 다 /135(22.8)				

〈표 3〉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정도

구 분	영 역	집단 M(SD)		
		노년층(593)	중년층(393)	청년층(675)
가족주의 가치관	전 체	3.53(.61)	3.12(.63)	2.65(.45)
	가족우선성	3.25(.71)	2.92(.73)	2.35(.59)
	부계가문의 영속화	3.63(.83)	3.02(.88)	2.19(.73)
	부모공경의식	3.53(.76)	3.17(.83)	2.91(.63)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3.74(.72)	3.39(.77)	3.13(.55)
효 의식	전 체	4.01(.68)	4.21(.57)	4.44(.49)
부모부양의식	전 체	3.97(.58)	4.02(.62)	4.09(.51)
	경제적 부양의식	3.96(.68)	4.05(.70)	4.23(.57)
	정서적 부양의식	4.06(.63)	4.05(.67)	4.00(.59)
	신체적 부양의식	3.89(.65)	3.97(.69)	4.06(.58)

강하게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노년층의 효 의식은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의 효 의식인데, 중년, 청년층의 높은 효 의식에 비해 노년층이 조금 낮게 나타나(M=4.01) 노년층이 지각하는 효 의식과 중년, 청년층의 효 의식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년, 청년세대가 가지는 효 의식에 비해 노인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효 의식은 조금 더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는 효 의식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김경신, 1998: 노년 2.90, 중년 2.83, 청소년, 2.82)와는 차이를 보여 다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축적될 때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겠다.

세대별 부모부양의식은 청년층(M=4.09), 중년층(M=4.02), 노년층(M=3.97) 순으로 나타났다. 각 세대 모두 부모부양의식이 높지만 청년층이 중년, 노년층보다 조금더 높게 나타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서병숙, 1986; 송효석, 1989; 허훈, 1988)과 일치하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노년층은 '정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 중년, 청년층은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각 세대간에 부양의식에 두는 관심의 차이를 보였다. 즉 청년, 중년층은 부모 노후에 경제적 부양을 담당할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서병숙, 1989; 이희자·김영미, 1996; 허훈, 1988)을 지지한다. 반면에 노년층은 정서적 부양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 측면의 요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 5, 6>과 같다. 먼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인의 연령( $p<.001$ ), 가족형태( $p<.01$ ), 자녀수( $p<.01$ ), 배우자 유무( $p<.001$ ), 종교( $p<.01$ ), 가정의 경제력( $p<.05$ ), 생활비 원조자( $p<.05$ ), 건강상태( $p<.001$ ), 교육정도( $p<.001$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장남부부와 동거할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종교가 불교일수록, 가정의 경제력이 어려울수록, 생활비 원조자가 장남부부일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의 효 의식은 노인의 연령( $p<.05$ ), 자녀수( $p<.01$ ), 종교( $p<.05$ ), 가정의 경제력( $p<.05$ ), 생활비 원조자( $p<.01$ ), 교육정도( $p<.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종교가 불교일수록, 가정의 경제력이 나을수록, 생활비 원조자가 아들들이거나 아들·딸일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노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사회인구학적 변수		구 분 (N=593)								
		가족주의가치관			효 의 식			부모부양의식		
		N	M(D)	F(t)	N	M(D)	F(t)	N	M(D)	F(t)
연 령	60-65세	263	54.24(A)	19.98***	263	19.87(A)	2.93*	263	47.40(A)	2.71*
	66-70세	146	55.24(A)		146	19.68(A)		146	46.79(A)	
	71-75세	120	60.37(C)		120	20.67(C)		120	48.25(A)	
	76세 이상	64	61.85(C)		64	20.71(A)		64	49.56(C)	
성 별	남 자	249	55.64	t=-1.93	249	20.08	t=-.01	249	47.46	t=-.56
	여 자	344	57.20		344	20.08		344	47.79	
가 족 형 태	장남부부와	185	58.32(C)	3.21**	185	20.30	1.47	185	48.17	1.17
	장남의 아들부부와	48	57.16(A)		48	20.25		48	47.68	
	딸부부와	10	59.40(A)		10	22.00		10	51.40	
	미혼자녀와	73	54.00(A)		73	20.06		73	47.72	
	노부부만	183	55.22(A)		183	20.03		183	46.91	
혼 자	94	57.00(A)	94	19.44	94	47.62				
자녀수	1-2명	89	54.88(A)	5.03**	89	19.13(A)	6.21**	89	48.32	2.16
	3-4명	273	55.79(A)		273	19.96(B)		273	47.01	
	5명이상	231	58.06(C)		231	20.58(C)		231	48.16	
배우자 유 무	없 다	235	58.67	t=4.39***	235	20.10	t=.11	235	48.45	t=2.27*
	있 다	358	55.16		358	20.06		358	47.13	
출 생 순 위	첫째	186	56.70	t=.26	186	20.30	t=1.08	186	47.76	t=.24
	둘째이상	407	56.48		407	19.98		407	47.61	
종 교	없 다	158	55.42(A)	5.92**	158	19.48(A)	3.39*	158	46.64(A)	3.83*
	기독교	66	53.74(A)		66	20.13(A)		66	49.43(B)	
	불 교	368	57.57(C)		368	20.33(B)		368	47.79(A)	
가정의 경제력	어 렵 다	78	58.96(C)	3.30*	78	19.25(A)	2.63*	78	48.29	.47
	보통이다	479	56.31(A)		479	20.21(B)		479	47.60	
	넉넉하다	36	54.55(A)		36	20.19(A)		36	47.02	
직 업 유 무	있 다	282	55.74	t=-1.93	282	20.04	t=-.27	282	47.39	t=-.89
	없 다	311	57.28		311	20.11		311	47.90	
생활비 원조자	장남부부	95	58.49(B)	2.02*	95	19.97(A)	2.83**	95	47.69	
	아들들	97	57.34(A)		97	20.59(B)		97	47.93	
	아들·딸 모두	224	56.64(A)		224	20.36(B)		224	47.85	
	딸	17	56.76(A)		17	21.11(A)		17	50.76	
	국 가	25	53.88(A)		25	19.92(A)		25	46.72	
	없 다	135	54.93(A)		135	19.22(A)		135	46.89	
건 강 태	자주 아프다	135	59.65(C)	11.09***	135	19.67	1.95	135	48.84	2.54*
	가끔 아프다	294	56.29(A)		294	20.06		294	47.39	
	건강하다	164	54.45(A)		164	20.45		164	47.15	
교 육 도	무학	147	61.90(C)	45.13***	147	20.66(B)	4.55**	147	49.42	8.31***
	국졸(서당)	274	56.41(B)		274	19.65(A)		274	47.60	
	중졸 이상	172	52.19(A)		172	20.26(A)		172	46.23	

\*p<.05, \*\*p<.01, \*\*\*p<.001, D: Duncan test 범주별 검증결과임.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중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사회인구학적 변수		구 분 (N=393)								
		가족주의가치관			효 의 식			부모부양의식		
		N	M(D)	F(t)	N	M(D)	F(t)	N	M(D)	F(t)
연 령	30대	212	48.74(A)		212	20.97		212	48.02	
	40대	160	51.12(B)	4.66**	160	21.10	.45	160	48.47	.18
	50대	21	54.33(B)		21	21.57		21	48.47	
성 별	남자	139	52.05		139	21.46		139	48.97	
	여자	254	48.90	2.97**	254	20.83	2.07*	254	47.83	1.46
자녀수	1명이하	20	46.60(A)		20	21.20		20	45.70	
	2명	238	49.52(A)		238	21.13		238	48.13	
	3명	106	50.74(A)	2.50*	106	20.75	.58	106	48.75	1.05
	4명이상	29	53.75(C)		29	21.38		29	48.89	
가족형태	확대가족	95	52.08		95	21.28		95	49.32	
	핵 가족	298	49.36	2.27*	298	20.98	.90	298	47.88	1.66
부모의 생존상태	두분 생존	181	50.23		181	21.00		181	47.43	
	아버지만 생존	22	50.86	.21	22	20.31	.93	22	48.72	1.99
	어머니만 생존	190	49.71		190	21.18		190	48.94	
출생순위	첫째	112	50.50		112	21.05		112	48.04	
	둘째이상	214	49.63	.34	214	21.10	.13	214	48.53	.48
	막내	67	50.45		67	20.89		67	47.58	
종 교	없 음	108	48.92(A)		108	20.51(A)		108	46.68(A)	
	기독교	77	46.70(A)	8.39***	77	21.01(A)	3.08*	77	47.64(A)	4.71**
	불 교	208	51.81(C)		208	21.35(B)		208	49.25(B)	
가정의 경제력	어 렵 다	57	50.79		57	21.75(B)		57	49.87	
	보통이다	324	49.67	2.25	324	20.87(A)	4.30*	324	47.96	.19
	넉넉하다	12	55.67		12	22.67(B)		12	47.92	
부모의 건강상태	자주아프다	59	50.42		59	20.93		59	48.30	
	가끔아프다	205	49.41	.79	205	21.01	.18	205	48.20	.01
	건강하다	129	50.79		129	21.17		129	48.25	
교육정도	국졸이하	37	54.22(C)		37	21.08		37	49.35(A)	
	중졸	90	53.27(C)		90	21.18		90	50.03(C)	
	고졸	191	48.86(A)	8.88***	191	20.95	.18	191	47.69(A)	3.25*
	대졸이상	75	46.97(A)		75	21.16		75	46.92(A)	

\*p&lt;.05, \*\*p&lt;.01, \*\*\*p&lt;.001, D: Duncan test 범주별 검증 결과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의 효 의식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부모부양의식은 노인의 연령(p<.05), 배우자 유무(p<.05), 종교(p<.05), 건강상태(p<.05), 교육정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종교가 불교일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p<.01), 성별(p<.01), 자녀수(p<.05), 가족형태(p<.05), 종교(p<.001), 교육정도(p<.001)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연령이 많을수록, 남자일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확대가족일수록, 불교일수록, 교육정도가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청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사회인구학적 변수		구 분 (N= 675)								
		가족주의 가치관			효 의 식			부모부양의식		
		N	M(D)	F(t)	N	M(D)	F(t)	N	M(D)	F(t)
연 령	20세이하	27	41.15(A)	20.92***	27	22.74	1.47	27	47.48(A)	5.52***
	21세	139	43.01(B)		139	22.22		139	49.34(A)	
	22세	326	40.42(A)		326	22.04		326	48.40(A)	
	23세이상	183	45.39(C)		183	22.44		183	50.52(B)	
형제 수	1명이하	110	40.87	1.89	110	22.14	.47	110	49.20	.48
	2명	179	42.72		179	22.34		179	48.80	
	3명	171	42.74		171	22.29		171	48.96	
	4명이상	215	42.40		215	22.07		215	49.50	
출 생 순 위	첫째	242	41.61	1.98	242	22.22	.21	242	48.79	.59
	둘째이상	204	42.90		204	22.28		204	49.23	
	셋째	229	42.55		229	22.13		229	49.39	
종 교	없음	382	42.26	-.25	382	22.07	-1.74	382	48.73	-1.94*
	있음	293	42.40		293	22.40		293	49.65	
성 별	남	299	45.11	9.55***	299	22.21	.05	299	49.92	2.96**
	여	376	40.10		376	22.20		376	48.50	
가 족 형 태	핵 가족	541	42.01	-2.09*	541	22.20	-.30	541	49.04	-.77
	확대가족	134	43.55		134	22.27		134	49.49	

\*p<.05, \*\*p<.01, \*\*\*p<.001, D: Duncan test 범주별 검증 결과임.

가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수 중에서 연령, 가족형태, 종교 변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한은주·최배영, 1997), 성별 변수는 선행 연구(옥선화, 1990)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청년층의 효 의식은 성별과 종교, 가정의 경제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청년층의 남자일수록, 종교가 불교일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력이 어려울수록 효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정의 경제력이 넉넉한 경우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해석상 한계를 가지고 보아야 하겠다.

청년층의 부모부양의식은 종교(p<.01)와 교육정도(p<.01)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년층은 종교가 불교일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교육수준 변수(김송애 외, 1990; 우미경, 1988; 한은주의,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청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p<.001), 성별(p<.001), 가족형태(p<.05)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연령이 높은 23세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우미경, 1988; 이은경, 1999)과 일치하며 이는 아들 중심의 가족문화의 영향을 시사한다.

또한 확대가족 형태의 청년층이 핵가족 형태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성별 변수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연구보고들(김송애·조병은, 1991; 한은주·김태현, 1994)과 일치하여 의미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청년층의 효 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년층의 효 의식

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 없이,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년층의 부모부양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연령( $p<.001$ ), 종교( $p<.05$ ), 성별( $p<.01$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았으며, 종교를 가진 청년층이 종교가 없는 청년층보다 부모 부양의식이 더 높고,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부양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 변수는 선행연구결과(이희자·김영미, 1996)와 일치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아들 선호사상과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아들이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결과는 아들보다 딸의 부모부양책임이 더 높은 서구의 연구결과(Silverstein et al., 1995; Glass, 1986; Whitebeck et al., 1994)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일 면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이 노년, 중년, 청년층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연령과 가족형태였으며, 중년 및 청년층의 공통 변인은 성별이었고, 노년층과 중년층에서는 자녀수, 종교, 교육정도 등이 공통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각 세대 모두 연령이 많을수록, 확대가족일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았으며 기타 변인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효 의식은 각 세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년·

중년층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변인은 종교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부양의식에 있어 노년, 중년, 청년층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변인은 연령이었으며, 노년, 중년층에 공통으로 나타난 변인은 교육정도와 배우자 유무 변인이었고 그밖에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부양의식에 있어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은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등 모두 세대에서 중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부양의식에 있어 세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은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 3. 세대별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세대별로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주의가치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29$ ), 그 다음으로는 연령으로 이 두 변수를 합한 설명력이 30%로 나타났다. 즉 가족주의 가치관만의 설명력이 29%로 나타나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역시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30$ ), 설명력은 30%이고 그 다음으로는

<표 7> 세대별 부모부양의식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

구 분	Step	독립 변수	Mult R	R sq	F(Eqn)	Sig F	Beta
노년층	1	가족주의가치관	.54	.29	248.37	.000***	.55
	2	연령	.55	.30	127.18	.000***	-.08
	3	효 의식	.55	.31	87.08	.000***	.08
중년층	1	가족주의가치관	.55	.30	167.30	.000***	.42
	2	효 의식	.66	.43	146.90	.000***	.38
	3	부모의 생존상태	.66	.44	101.60	.000***	.10
청년층	1	효 의식	.52	.27	249.22	.000***	.46
	2	가족주의가치관	.59	.34	176.17	.000***	.27

\*\*\* $p<.001$

효 의식으로 이 두 변수를 합한 설명력이 43%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효 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 27$ ), 그 설명력은 27%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며, 이 두 변수를 합한 설명력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효 의식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전통적 가족문화 규범의 하나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부모 부양의식에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효 의식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 가족문화 규범을 구성하는 주요 가치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일고 있는 효 의식에 대한 연구들(김명자·안선영, 1996; 박재간, 1989; 성규탁, 1994; 성미애·옥선화, 1997; 정옥분의, 1996)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문화를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또한 세대 간 차이를 볼 수 있는 점은 노부모 부양에 있어 노년, 중년층들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 변수로 나타난 데 비해 청년층에 있어서는 효 의식이 가장 큰 영향 변수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즉 노년, 중년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청년층으로 내려와서는 그 중요성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족중심적 집합주의 경향에서 개인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해 간다는 선행연구결과(우미경, 1988; 이은경, 1999)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4.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 효 및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년층의 경우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이 가장 높고(.54), 다음으로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나타났

<표 8>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 효 및 부모부양의식간의 상관관계

구 분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부 모 부양의식
효 의식	노년층	1.0000	.1377**	.1471**
	중년층	1.0000	.3455**	.5275**
	청년층	1.0000	.1889**	.5198**
가족주의 가치관	노년층	.1377**	1.0000	.5440**
	중년층	.3455**	1.0000	.5474**
	청년층	.1889**	1.0000	.3648**
부 모 부양의식	노년층	.1471**	.5440**	1.0000
	중년층	.5275**	.5474**	1.0000
	청년층	.5189**	.3648**	1.0000

\*\*p<.001

다( $p<.001$ ). 중년층도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이 가장 높고(.54) 다음으로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청년층은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이 가장 높고(.51), 다음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나타났다( $p<.001$ ). 즉 노년층과 중년층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이 가장 높은 반면 청년층은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 간의 상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년층과 중년층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의식이 높으며, 청년층은 효에 대한 가치 의식을 많이 가질수록 부모를 부양하는데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이 부모부양의식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상관관이 낮게 나타나 상호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함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현대사회 속에 전통적 가족 윤리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전통적 가족 윤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적 가족 윤리라 할 수 있는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 그리고 부모부양의식을 세대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인 대학생 675명, 중년층인 기혼남녀 393명, 노년층인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593명을 대상으로 총 1,661명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 효 의식 척도, 부모부양의식 척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년층(M=3.53), 중년층(M=3.11), 청년층(M=2.65) 순으로 나타나 세대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 별로 보면 전체와 같은 경향이나,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으로 노년, 중년, 청년층 모두 타 영역보다 높게 나타나 오늘날 가족주의 가치관 영역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대간에 가치의 유사성을 가진다는 선행연구(Chodorow, 1978; Elder, 1984)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노년층(M=3.74)이 중년(M=3.39), 청년층(M=3.13)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세대별 효 의식은 청년층(M=4.44), 중년층(M=4.21), 노년층(M=4.01) 순으로 나타나 각 세대 모두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은 계속해서 강하게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세대별로 보면 노년층의 효 의식은 노인이 지각하는 효 의식인데, 중년, 청년층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대별 부모부양의식은 청년층(M=4.09), 중년층(M=4.01), 노년층(M=3.97) 순으로 나타나 각 세대 모두 부모부양의식이 높지만 청년세대가 중년, 노년세대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노년세대는 '정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 중년, 청년세대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각 세대간에 부양의식에 두는 관심의 차

이를 보였다.

둘째, 노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연령( $p<.001$ ), 가족형태( $p<.01$ ), 자녀수( $p<.01$ ), 배우자 유무( $p<.001$ ), 종교( $p<.01$ ), 가정의 경제력( $p<.05$ ), 생활비 원조자( $p<.05$ ), 건강상태( $p<.001$ ), 교육정도( $p<.001$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년층은 연령( $p<.01$ ), 성별( $p<.01$ ), 자녀수( $p<.01$ ), 가족형태( $p<.05$ ), 종교( $p<.001$ ), 교육정도( $p<.001$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은 연령( $p<.001$ ), 성별( $p<.001$ ), 가족형태( $p<.05$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었다. 세대별로 보면, 각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연령과 가족형태였으며, 중년 및 청년세대의 공통 변수는 성별이고, 노년 및 중년세대에서는 자녀수, 종교, 교육정도 등이 공통 변수로 나타나 세대간에 차이를 보였다.

한편 노년층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의 효 의식은 노인의 연령( $p<.05$ ), 자녀수( $p<.01$ ), 종교( $p<.05$ ), 가정의 경제력( $p<.05$ ), 생활비 원조자( $p<.01$ ), 교육정도( $p<.01$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년층의 효 의식은 성별과 종교, 가정의 경제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 청년층의 효 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대별로 보면 각 세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년·중년세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변수는 종교변수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부모부양의식은 연령( $p<.05$ ), 배우자 유무( $p<.05$ ), 종교( $p<.05$ ), 건강상태( $p<.05$ ), 교육정도( $p<.001$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부모부양의식은 종교( $p<.01$ ), 교육정도( $p<.05$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층의 부모부양의식은 연령( $p<.001$ ), 종교( $p<.05$ ), 성별( $p<.01$ )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부모부양의식에 있어 각 세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변수는 종교 변수였으며, 노년, 중년세대에 공통으로 나타난 변수는 종교와 교육정도 변수였다.

셋째, 노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주의가치관( $R^2=.29$ ), 연령 순으로, 이 두 변수를 합한 설명력이 30%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주의 가치관( $R^2 = .30$ ), 효 의식 순으로, 이 두 변수를 합한 설명력이 43%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부모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효 의식( $R^2 = .27$ ),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이 두 변수를 합한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노년 세대와 중년 세대의 부모부양의식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력이 큰 반면 청년세대는 효 의식이 가장 큰 영향 변수로 작용하였다.

넷째, 노년층과 중년층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p < .001$ ), 청년층은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 $p < .001$ )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주의 가치관은 노년층에서 중년층, 청년층으로 내려올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사회 속에서 감소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윤리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가족주의 가치가 조금씩 약해지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오늘의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수정되어야 하겠다.

둘째, 효 의식과 부모부양의식은 노년, 중년, 청년층 등 모든 세대에서 중요한 가치규범으로 나타나, 현대사회 속의 전통적 가족 윤리로서 여전히 그 가치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효와 부모부양의식의 가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성규탁, 1995), 오늘날 '효의 현대화'라는 일련의 움직임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서 '효'와 '노부모 부양'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 윤리를 현대사회에 맞는 가치관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노년, 중년, 청년층 등 모든 세대에서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의식이 부모부양의식의 중요 영향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노부모 부양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재정립된 효 의식과 수정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자녀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가족 윤리들이 부분적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면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세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가치관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어 갈등의 측면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 의식이나 부모부양의식 등의 일정한 가치들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로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세대간에는 상호교환과 발전적 변화의 역동관계에 의해서 유사성이 지속된다(Elder, 1984)는 이론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현대사회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 가족 윤리인 효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 재정립이 이루어져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가족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교육적, 정책적인 과제 연구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현대사회 속에서 감소되고 있는 전통적 가족 윤리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현대 사회에 맞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현대사회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 윤리와 관련하여 세대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의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 ■ 참고문헌

- 1)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2) 김명자·안선영(1996), 신세대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25.
- 3) 김송애·조병은(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03-322.
- 4) 김태길(1982),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문음사, 164-165.
- 5)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 6) 박재간(1989), 전통적 효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9-117.
- 7) 서병숙·이신숙(1991), 농촌기혼 여성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 수행도, 한국노년학 11(2), 191-207.
  - 8) 서병숙(1989),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50-68.
  - 9) 성규탁(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2), 251-273
  - 10) \_\_\_\_\_(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50-68.
  - 11) \_\_\_\_\_(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14.
  - 12) 성미애·옥선화(1997), 효 규범에 대한 사적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5(3).
  - 13)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4) 옥선화(1990),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61-170.
  - 15) 옥선화·이형실(1994)·이춘희, 노인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 부양자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2), 61-77.
  - 16) 우미경(1988),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7) 이가옥외,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18) 이신숙·서병숙(1993), 기혼여성의 노모 부양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67-79.
  - 19) 이은경(1998),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노후의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45-65.
  - 20) 이효재(1985), 분단시대의 가족문제, [분단시대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1985, 193.
  - 21) 이희자·김영미(1996),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17-128.
  - 22) 정옥분의 7명(1996), 한국인의 효인식 및 실천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387-403.
  - 23) 조병은·신화용(1992), 사회교환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24) 조경자·한동희·조은희(1996),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261-273.
  - 25) 최재석(1965),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민조사, 23-24.
  - 26)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5(6), 55-69.
  - 27) \_\_\_\_\_(1994),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25-36.
  - 28) \_\_\_\_\_(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 18(2), 47-63.
  - 29) 한경혜(1996),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21-37.
  - 30) 한은주·김태현(1994),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95-116.
  - 31) 한은주·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373-383.
  - 32) 홍상욱(1990), 가족연구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지향의 한·일비교, 가족학논집 2집, 63-87.
  - 33) Bengston, V. L.(1975), Generations and family effects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0, 358-371.
  - 34) Bengston, V. L.(1989), The Problem of generations: Age group contrasts, continuities, and social changes, 25-54, (In) *The Course of Later Life*, V. L. Bengtson, and K. W. Schaie(Eds.) New York: Springer.
  - 35) Brackbill, Y., & Kitch, D.(1991), Intergenerational



- relationships: A Social exchanges perspective on joint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elderly and their relatives, *Journal of Aging Studies*, vol. 5, 77-97.
- 36) Braungart, R. G., & Braungart, M. M.(1986). Life course and generational politic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2, 205-231.
- 37) Compbell, E. Q.(1969). Adolescent socialization, 821-860., (I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D. A. Goslin (Ed.) Chicago: Rand-McNally.
- 38) Elder, Jr., & G. H.(1984). Families, Kin, and the life course: A sociological perspective, 80-136, (I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The Family, R. Parke (Ed.) Chicage: University of Chicage Press.
- 39) Glass, J., Bengtson, V. L., & Duham, C.(1986). Attitude similarity in three generational families: Socialization, status inheritance, or reciprocal influ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51, 685-698.
- 40)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41) Heller P. L., Familism scale: 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1976, 73-80.
- 42) Silverstein, M., Parrott,T. M., and Bengtson, V. L.(1995), Factors that predispose middle-aged sons and daughters to provide social support to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May.), 465-475.
- 43) Whitbeck, L. Hoyt, D. R., and Huck, S. M.(1994),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49(2), s85-s94.